

plastic bag의 사용, 카테터의 개선, Titanium adapter의 개발, 환자의 교육 등으로 인하여 합병증의 발생빈도가 점차 감소됨으로서, 그 이용자 수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지만, 여전히 복막염이나 카테터 문체 등과 같은 합병증의 예방과 치료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.

연자들은 1983년 4월부터 1985년 3월까지 만 2년간 고신외대 부속 복음병원에서 시행한 CAPD 환자 76예에서 발생한 합병증의 종류와 그 경과를 보고하고자 한다.

대상 환자의 연령분포는 40대 22예(29.0%), 30대 20예(26.3%), 50대 16예(21.1%), 20대 9예(11.8%), 60대 7예(9.2%), 10대 2예(2.6%)로서 평균은 42.3세였으며, 남녀비는 남자가 53예(69.7%), 여자가 23예(30.3%)였다. 환자의 원인질환별 분포는 만성 사구체 신장염 47예(61.8%), 고혈압성 말기신부전 11예(14.5%), 당뇨병성 신질환 10예(13.2%), 기타 8예(10.5%)였다.

합병증은 복막염이 79회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발생 빈도는 1.61 episodes/pt/yr였고, 이들 가운데 63회의 Gram 염색에서는 9예(14.3%)에서 균이 발견되었는데, Gram 양성구균이 6예(66.7%), Gram 음성간균, Gram 음성쌍구균 및 효모양진균이 각각 1예였다. 균 배양검사는 69회 실시하여, 37예(53.6%)에서 균이 배양되었는데, 진균이 10예(14.4%), S. aureus 7예(10.1%), Acinetobacter 4예(5.8%), E. coli와 Pseudomonas가 각각 3예(4.3%), S. epidermidis와 S. faecalis가 각각 2예(2.9%), 기타균들이 6예(16.2%)였다.

카테터에 의한 합병증으로는 카테터 출구감염 13예(16.0%), 카테터 폐쇄 8예(9.8%), 부강내 출혈 7예(8.6%), 카테터주위 관류액 누출 6예(7.4%), 카테터 변위 5예(6.2%), 봉합부위로 관류액 누출 1예(1.2%), 카테터 출구부위 출혈 1예(1.2%)였으며, 그외 합병증으로는 난청 4예(4.9%), 탈장 3예(3.7%), 비만증 2예(2.4%), 고환부종 1예(1.2%) 및 potadine 알러지가 1예(1.2%)였다. CAPD 기간과 합병증의 관계는 첫 1개월에는 주로 기계적 합병증이 발생하였고, 복막염의 발생빈도는 1개월째부터 8개월째까지는 비슷하였으나, 그 이후는 현저하게 낮았다.

카테터를 제거한 경우는 81예(2회 삽입한 5예 포함) 가운데 25예(30.9%)였으며, 그 원인은 진균 복막염 10예 전예(12.3%), 항생제 치료에 저항하는 복막염 6예(7.4%), 카테터 폐쇄 5예(6.2%), 환자의 불편에

의한 것이 2예(2.4%), 카테터 변위와 신기능 회복이 각각 1예(1.2%)였다.

— 56 —

신이식 후 칼슘대사의 변동

경희외대 내과

남연호 · 이종원 · 손영진

임천규 · 김명재

신이식 후 여러가지 요소들에 의해 고칼슘혈증이 일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. 또한 부갑상선 호르몬의 혈중치는 일반적으로 이식 후 측정되었던 COOH-terminal fragment의 배설과 혈청 칼슘치의 개선으로 인하여 감소되는데, 가끔 지속적인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.

이에 저자들은 신이식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신이식 전, 후의 혈청 칼슘과 인, Alkaline phosphatase 및 부갑상선 호르몬의 동태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1) 대상환자들은 신이식 후 평균 27개월 추시 후 재혈하였으며, 혈청 크레아티닌치는 평균 1.9 mg/dl이었다.

2) 신이식 후의 혈청 칼슘은 4.3 ± 0.5 mEq/L로서, 이식 전 3.3 ± 0.7 mEq/L에 비해 유의한 차로 증가하였다($p < 0.005$).

3) 신이식 후의 혈청 인은 3.6 ± 0.6 mg/dl, 혈청 부갑상선 호르몬은 315 ± 202.4 pg/ml로서 이식 전 각각 9.2 ± 2.9 mg/dl, $2,755 \pm 1,500$ pg/ml에 비해 유의한 차로 감소하였다($p < 0.005$).

4) Alkaline Phosphatase는 신이식 전과 후 각각 9.3 ± 2.7 , 8.8 ± 3.1 King Armstrong Unit로 유의한 차가 없었다.

5) 혈청 크레아티닌과 신이식 후의 혈청 칼슘은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였고, 혈청 크레아티닌과 신이식 후의 Alkaline phosphatase는 유의한 정상관계를 보였다($p < 0.01$).

6) 대상환자 10명중 신이식 후에도 부갑상선 기능항진을 보인 예는 2명이었고, 저칼슘혈증은 1명에서, Alkaline phosphatase의 증가도 1명에서 관찰되었다. 결론적으로 만성신부전으로 초래된 칼슘과 인 및 부갑상선 호르몬의 이상은 신이식 후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.